



금수강산

10

주체112(2023)
루게 제410호 월간

표지: 인민의 환호성

손에 손마다에 람홍색 공화국기와 꽃다발을 높이 들고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조국인민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 온 75년력과 더불어 빛나는 주체조선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2



6



44



52



64

- 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 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 1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 진행
- 2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대공연 진행
- 2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
- 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재중동포들 뜻깊게 경축
- 28 ||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 연방을 공식친선방문하시였다

일화

- 36 ||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나날에

- 37 || 인민의 진정한 그 부름-어머니
- 39 || 단군릉이 전하는 이야기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 40 || 단합의 리념아래
- 42 || 드높은 열의, 완강한 실천력으로
- 44 || 약동하는 철의 기지
- 48 || 인기있는 공기조화기-《청기》
- 50 || 로쇠를 이기는 힘
- 52 || 료리사가정
- 54 || 쟁쟁한 가수후비들을 키워내는 교육자
 - 고향소식
- 56 || 산과 강을 다스려 행복을 마련해간다
 - 조국의 품에 안겨
- 60 || 언어학자 권종성
- 62 || 조국은 우리 삶의 영원한 품입니다
- 64 || 문덕철새보호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9월 8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자주강국의 새시대를 펼쳐시고 전면적국가부흥의 력사

적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모든 영광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며 주체조선의 공민된 무한한 긍지를 안고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전체 참가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도당책임비서들, 도인민위원장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근로자,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대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행사참가자들, 당중앙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혁명학원 학생들,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가 하였다.

김덕훈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이 세계에 선포된 력사의 그 시각과 더불어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향도와 인민정권의 불패의 생활력에 의하여,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쥔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짧은 력사적기간에 강국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으며 존엄과 영광으로 빛나는 75성상의 불멸의 행로에서 오늘과 같은 강대한 국가가 태어나게 되





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비상히 상승하여온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은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 우리 인민정권과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승리인 동시에 그 정당성과 우월성, 불패의 생활력을 곳곳이 지켜낸 우리 인민의 역센 자존심과 강인성의 승리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혁명해온 지난 10여 년의 투쟁이 이를 훌륭한 결실로써 증시해주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주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전반적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어떠한 위기하에서도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자기의 신성한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김덕훈동지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당의 령도밑에 부흥강국의 리상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우리의 신념과 노력을 위대한 새 승리로 이어놓는 오늘의 력사적인 투쟁에서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향도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길,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진정한 인민공화국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전면적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는 인민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충만된 보

고는 참가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보고대회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충성으로 받들어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더욱 역적으로 다지고 빛내이며 주체강국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나갈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 무력열병식이 9월 8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위훈떨쳐온 민방위무력의 열병대오가 도도히 굽이치게 될 광장은 위대한 강국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관중들의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수도의 밤하늘을 활무대로 항공체육명수들이 특색있는 집체강하기교를 펼치고 람홍색광채를 뿌리는 우리의 국기를 거쪽으로 휘날리며 날아 내려 경축열기를 더해주었다.

세기의 창공에 눈부시게 빛발치는 내 조국의 역사를 수놓는듯 비행기편대가 수자 《75》를 형상한 대형을 짓고 축포탄을 쏘아올리며 축하비행을 진행하였다.

종합군악대의 군악례식이 있었다.

군악대원들이 주체조선의 건국력사를 약동하는 선률과 기백있는 물동에 담아 펼치고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능란하고 재치있는 무기기교를 보여주었다.

위대한 강국의 힘,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한길을 따라 급속도로 비약하며 눈부신 미래에로 달려나가는 강용한 인민의 기상을 안고 민방위무력 열병종대들이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듯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를 위시하여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리병철원수, 박정천원수와 군부의 지휘관들이 주석단특별석에 자리잡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국무원 부총리 류국중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알렉산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아카데미야협주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중국과 로씨야의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계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광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받쳐 든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국기호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울리는 속에 정의와 필승불패의 상징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우리의 국기가 서서히 계양되었다.

존엄높은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인민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 인민의 지향과 힘으로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열렬히 사랑하고 무궁토록 빛내어갈 천만심장의 불변의 의지를 활화로 분출시키며 축포가 터져올라 열병광장을 감격과 격정으로 끓게 하였다.

《빛나는 조국》의 노래주악과 함께 21발의 레

포가 발사되었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오일정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기 위해 정렬한 열병부대들을 점검하였다.

김정은동지께 오일정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올리였다.

인민군대와 함께 공화국무력의 2대기둥이 되어 전민항전의 철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강위력한 전투대오인 민방위무력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시작되였다.

열병대오의 선두에는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를 제일 가까이에서 보위하는 친위전사들답게 인민사수전의 최전구마다에서 별동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친 우리당의 강력한 핵심력량인 수도당원사단중대가 서있었다.

평양시로농적위군중대에 이어 조국의 서부국경관문을 억척같이 지켜신 평안북도 로농적위군중대와 수도 평양을 옹위하는 위성도인 평안남도 로농적위군중대가 붉은기를 나뭇기며 위엄있게 나아갔다.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번째 고지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를 제일선에서 받들어나가는 농업전선의 전초병대오인 황해북도, 황해남도 로농적위군중대들의 발걸음도 드높았다.

풍파사나운 력사속에서 우리 혁명위업이 어떻게 지켜지고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이 어떻게 보위되었는가를 웅변하며 자력경쟁, 간고분투로 조국의 전진비약의 봉화가 되고 초석이 되었던 시대정신창조자들의 남다른 자부심을 안고 자강도, 강원도 로농적위군중대가 힘차게 용진해갔다.

나날이 강대해지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무적의 총대에 비껴안고 굴지의 대공업기지들을 지켜신 함경북도, 함경남도 로농적위군중대와 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옹위하는 역센 성벽인 량강도 로농적위군중대, 각 직할시 로농적위군중대들에도 무적필승의 기상이 약동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긍지높은 력사와 전통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빛내여나가며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혁명인재육성의 본보기대학으로 이름떨치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로농적위





군중대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나가는 맹장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열병광장을 활보해갔다.

자립경제의 쌍기둥인 금속공업, 화학공업부문을 지켜선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농적위군중대를 비롯하여 경제건설의 중요고지,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주타격방향에서 편대적혁신과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중요공업부문의 로농적위군중대들이 련이어 광장으로 들어섰다.

일터에선 소문난 혁신자, 다수확농민이 되고 총을 잡으면 백발백중의 명사수, 명포수가 되어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해나가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원군 원화농장 로농적위군중대를 비롯한 열병종대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민방위무력 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며 희열에

넘쳐 주석단앞을 행진해갔다.

과학기술로 공화국의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견인해나가고있는 과학자들의 대부대 국가과학원 로농적위군중대에 이어 문화성, 체육성, 보건성 로농적위군중대에도 지혜와 땀과 열정을 다 바쳐 사회주의문화의 개화기를 열어나갈 애국의 일념이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항일의 소년선봉대, 전화의 소년빨찌산의 고귀한 넋을 간직한 붉은청년근위대총대가 정든 교정과 사랑하는 고향산천을 굳건히 지켜싸울 철석의 맹세드높이 기세충천하여 전진해갔다.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 인민이 총검을 틀어잡고 전국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된 강대국의 위상을 힘있게 떨치며 로농적위군의 기계화종대들이 진군을 개시하였다.

신속한 기동력을 갖춘 모터찌클종대에 이어 사



회주의 농촌에서 기계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는 트랙터들이 견인하는 반땅크미싸일중대와 자기 마을, 자기 일터의 상공마다에 철벽의 진을 친 고사포중대, 로농적위군의 전투능력을 과시하는 위장방사포병중대들이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길 만반의 림전태세를 갖추고 광장을 누벼나갔다.

그 어떤 적대세력도 감히 넘볼수 없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억척같이 다지시어 진정한 평화와 후손만대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만년담보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열병식이 끝나자 경축의 축포와 고무풍선들이

하늘을 뒤덮고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열병광장을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돛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충성과 애국의 위

대한 힘으로 사회주의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에 새로운 기적과 승리를 떨쳐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투쟁기세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화불야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화불야회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애국청년들 앞으로!》가 9월 8일 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광장과 잇당은 대통령들에는 위대한 강국의 청년전위된 무한한 긍지와 영예를 안고 청년학생들이 손에손에 화불봉을 들고 정렬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 리

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도당책임비서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로간부들과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참가자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알렉산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아카데미야협주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중국과 로씨야의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노래 《청춘과 용감성》이 울리는 가운데 화불대오들이 입장하였다.

야회장에 《우리는 청춘》, 《제승자》라는 궁지높은 글발이 타오르는 화불로 빛나며 경축의 밤을 환희롭게 밝혀주었다.

화불야회시작이 선언되자 《빛나는 조국》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1948-2023》,

《영원한 수령》, 《태양조선》이라는 글발과 공화국기도형, 태양도형 등이 화불대형변화로 련이어 펼쳐졌다.

사회주의조선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주체적 청년운동의 개척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열화와 같은 경모심을 분출시키며 태양의 존함들이 야회장에 모셔져 찬란한 빛을 뿌리고 태양칭송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관중들은 미덥고 끝끝한 청년전위들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충성의 열광으로 달아오른 광장에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의 장엄한 선율이 울리고 《절세의 영웅》이라는 글발을 새긴 해불대렬들이 용용히 굽이쳤다.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존엄높고 영광넘친 강국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만고불후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는 《백전백승》, 《강국》, 《위민헌신》의 글발들과 조선지도와 조선로동당마크를 비롯한 다채로운 해불도형들이 련속 형성되었다.

노래 《사회주의전진가》의 힘찬 선율에 맞추어 해불대오가 《전면적발전》의 글발을 펼치며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광장을 누벼나갔다.

당의 두리에 철벽의 성벽을 이룬 천군만마와

같은 청년대군,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당의 구상에 일치시키고 물불을 가림없이 돌진해나가는 청년들의 위훈을 축하하듯 축포탄들이 날아올라 아름다운 불꽃보라를 뿌리었다.

우리 공화국의 75성상의 력사가 함축되어있고 류레없는 창조와 혁신의 숨결이 맥박치고있으며 우리 국가의 양양한 미래가 비껴있는 사회주의애국청년의 부름을 가장 값높이, 가장 영예롭게 빛내어나갈 청년전위들의 철석의 의지가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의 노래속에 광장에 새겨지는 《혁명신념》, 《500만》이라는 글발과 영웅메달, 붉은기도형들에서 빛발쳤다.

전세대들이 물려준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이어 위대한 당중앙과 일심일체를 이루고 언제나 곧바로, 앞으로만 달려갈 영웅청년대군의 신념의 분출인듯 공화국기를 중심으로 한 대형원도형이 불길로 부각되고 그를 옹위하여 수많은 해

불들이 《결사관철》, 《애국청년》의 글자를 형성하면서 도도히 굽이쳤다.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국가부흥의 새시대, 활기찬 혁명의 새 전기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신념의 해불, 투쟁의 해불이 될 500만 청년전위들의 열렬한 지향을 전하며 충성의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광장을 진감하는 속에 새겨진 《번영하여라 조국이어!》라는 장엄한 글발이 해불야회의 마감을 뜻깊게 장식하였다.

청춘의 열정이 차넘치는 광장에 경축의 원무가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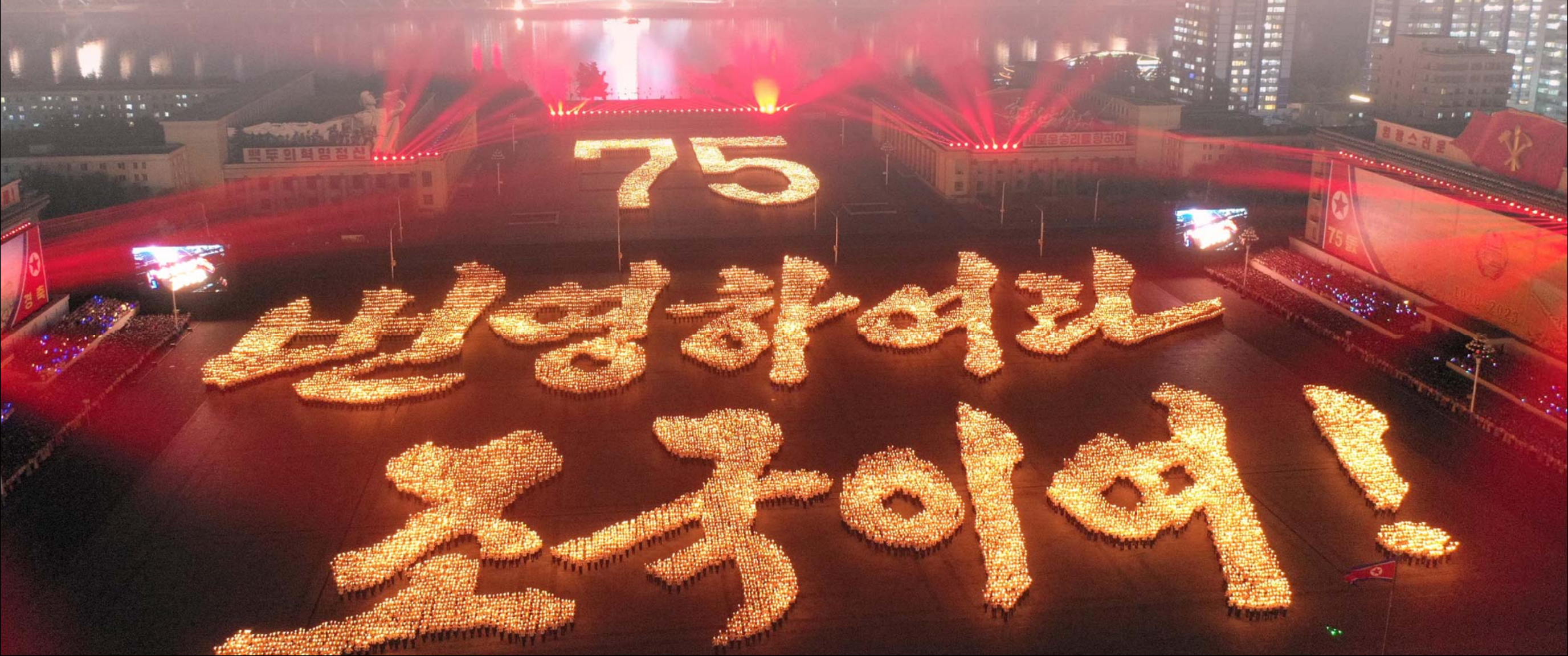
《청춘송가》, 《사랑하자 나의 조국》 등의 노래선율에 맞추어 경쾌하고 박력있는 룰동을 펼치는 청년들의 희열과 량만으로 야회장은 아름다운 춤바다를 이루었다.

해불야회가 끝나자 형형색색의 축포들이 앞을 다투어 터져오르며 9월의 밤하늘에 눈부신 화광을 뿌리고 황홀한 신비경을 연해연방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 지로 굳게 통일단결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혁명적기상의 분출인양 전체 참가자들이 합창하는 노래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가 우렁차게 메아리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돛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는 걸출한 수령들을 높이 모시고 성스러운 공화국기에 승리와 영광만을 새겨온 애국충정의 력사를 피출처럼 이어가는 수백만 청년대군이 있어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는 무궁창창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대공연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정치축전으로 기념하는 환희와 격정을 더해 주며 9일 밤 경축대공연이 만수대의사당앞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 동지,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와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경축행사참가자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혁명학원 학생들, 평양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과 알렉산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아카데미아협주단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공연에는 국무위원회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중요 예술단체들과 사회와 군대의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 예술인, 학생들이 출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공연무대에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높이 올린 수령송가, 로동당찬가들과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수호하고 빛내이는 려정에서 태어난 투쟁의 노래, 창조의 노래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서곡 《우리의 국기》의 승업한 선율이 울리는 속에 경축의 밤하늘에 우리 국가의 자주적존엄과 기상, 우리 인민의 무한한 영예와 행복의 상징인 공화국기와 《75돛》이라는 글발이 눈부시게 새겨졌다.

이어 걸출한 건국의 아버지를

높이 모신 민족의 환희를 전하며 삼천리강산을 진감하던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승리의 5월》을 비롯하여 부강조국건설의 첫 페이지를 힘있게 펼치던 새 조선의 모습을 추억깊이 되새겨주는 명곡들이 메아리쳤다.

세계지도에서 사라졌던 조신을 다시 찾아 누리에 밝은 빛을 뿌리게 해주시고 망국과 수난으로 짓눌렸던 민족을 자주적인민으로 억세게 키워 기적의 창조자, 불사신의 영웅으로 내세워 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이 끓어넘치는 불멸의 송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이민위천의 반석우에 주체혁명의 산아로 탄생하여 세계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불요불굴의 기상으로 운명적인 국난들과 엄혹한 도전들을 타개하며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전후 폐허의

재더미우에서도 용감히 솟구쳐 자주, 자립, 자위로 굳건한 강국에로의 길을 개척하고 빛내여 온 우리 조국의 자랑찬 력사가 격동적인 년대의 노래들과 함께 뜨겁게 굽이쳤다.

우리의 힘, 우리의 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철석의 의지로 달아오른 무대우에 조국번영의 길에서 참된 삶의 공지와 보람을 찾는 우리 인민특유의 순결 무구한 애국충정을 구가하는 명곡들이 련이어 울려 퍼졌다.

출연자들은 주체의 향로따라 세대와 세기를 이어 지켜온 사회주의 내 나라를 진함없는 열정과 지혜, 분투로써 세상이 보란듯이 빛내여갈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환희롭고 경쾌한 노래와 무용들로 감명깊게 펼쳐 보였다.

우리 국가와 인민이 걸어온 영웅적인 투쟁행로와 이룩한 위업의 신성함을 긍지높이 토로하며 장장 75성상 백절불굴의 기상속에 승승장구해온 공화국의

력사와 불멸의 영광을 위대한 일심단결, 일편단심의 위력으로 무궁토록 빛내어나갈 인민의 신념을 선언한 설화시 《번영하라 조국이어》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우리 혁명을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정의롭고 강대한 힘의 진진, 불가항력적위업으로 세기우에 거연히 떠올리시며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강국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찬연히 펼쳐가시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를 활화로 분출시킨 녀성독창과 합창 《빛나는 조국》, 종곡 《우리의 국기》로 공연은 끝났다.

공화국의 찬란한 력사와 휘황한 미래,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서사시로 펼쳐보인 공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돛 경축행사의 절정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



조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전인민적명절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온 장구한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가장 눈부신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수놓으며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한 조국인민은 조국땅 방방

곡곡에 절세위인들을 우리러 더치는 흠모의 꽃바다, 경축의 꽃바다를 펼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인민들은 조국을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 자

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절세위인들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돌이켜보며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태양상,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인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인사를 드리였다.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에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와 각지에 있는 려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려사묘들을 찾았다.

각지에서 국기계양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의 장중한 선률속에 9월의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을 바라보며 참가자들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애국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들을 다지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장과 중앙미술전시회장을 비롯하여 각지의 여러 전람회장, 전시회장을 찾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기에 빛날 국가건설업적과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를 담은 불멸의 화폭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평안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각지의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덕성발표모임, 경축모임, 웅변모임이 있었다.

모임들에서 출연자들은 이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재증조선인총련합회와 재증동포단체, 해외연교자가족들이 보내여온 꽃바구니의 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는 근로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우표전시회장에 전시된 전시물들을 보고있는 근로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재중동포들 뜻깊게 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장을 돌아보는 각계층 근로자들

위천을 한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대중중심의 국가건설의 가장 공고한 기초를 마련하시고 독특한 발전력사를 창조하신데 대하여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경사로운 9월명절의 환희를 더해주시며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었다. 수도의 이르는 곳마다에 야

외공연무대가 펼쳐져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영광넘친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무궁토록 번영할것이라는 철리를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더욱 굳게 새겨주었다.

각지에 펼쳐진 청년들과 녀맹

원들의 흥겨운 경축무도회는 명절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한 조국인민은 고귀한 투쟁으로 지켜내고 떨쳐온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앞당겨나갈 애국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강경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이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9월 9일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길림지구협회 전 부회장 홍영순가족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과 심양, 단동에 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래양상,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중남지구협회 베이징시지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채택모임이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공화국창건 75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회가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중앙상임위원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 산하지구협회 지부장들, 분회장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최은복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뜻깊게 맞으며 우리 공화국을 창건해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우리 공화국을 세계가 공감하는 정치군사강국으로 내세워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총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기적락후와 빈궁이 지배하고 일제의 식민지에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조국을 해방하시고 자주독립국가를 세워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조선의 장엄한 탄생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할수 있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태양의 나라 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일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가장 열렬한 애국의지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부강조국건설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건설념원을 반드시 실현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 밑에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참답게 구현되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끊없이 울려퍼지는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전변되었다고 찬탄하였다.

그는 총련합회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서 가르쳐주신대로 모든 사업을 동포제일주의로 확고히 지향시키고 일관하게 관철하며 우리 해외공민들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옹호하고 공민들의 생활상요구와 리익,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대외혁명활동으로 승화발전된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동포조직들과의 련대련합을 적극 진행하고 조중친선강화발전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외혁명활동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이에 앞서 7일 공화국창건 75돐 경축공연이 진행되었다.

한편 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중남지구협회, 목단강지구협회,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를 비롯한 산하조직들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전국 각지에서 공화국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을 공식친선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을 공식친선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13일 원동지역의 아무르주에 위치하고있는 위스토프스노이우주발사장에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가 따듯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정깊은 인사를 나누시였다.

뿌찐대통령은 김정은동지께서 로조관계발전에서 뜻깊고 중대한 시기에 로씨야련방을 또다시 찾아주신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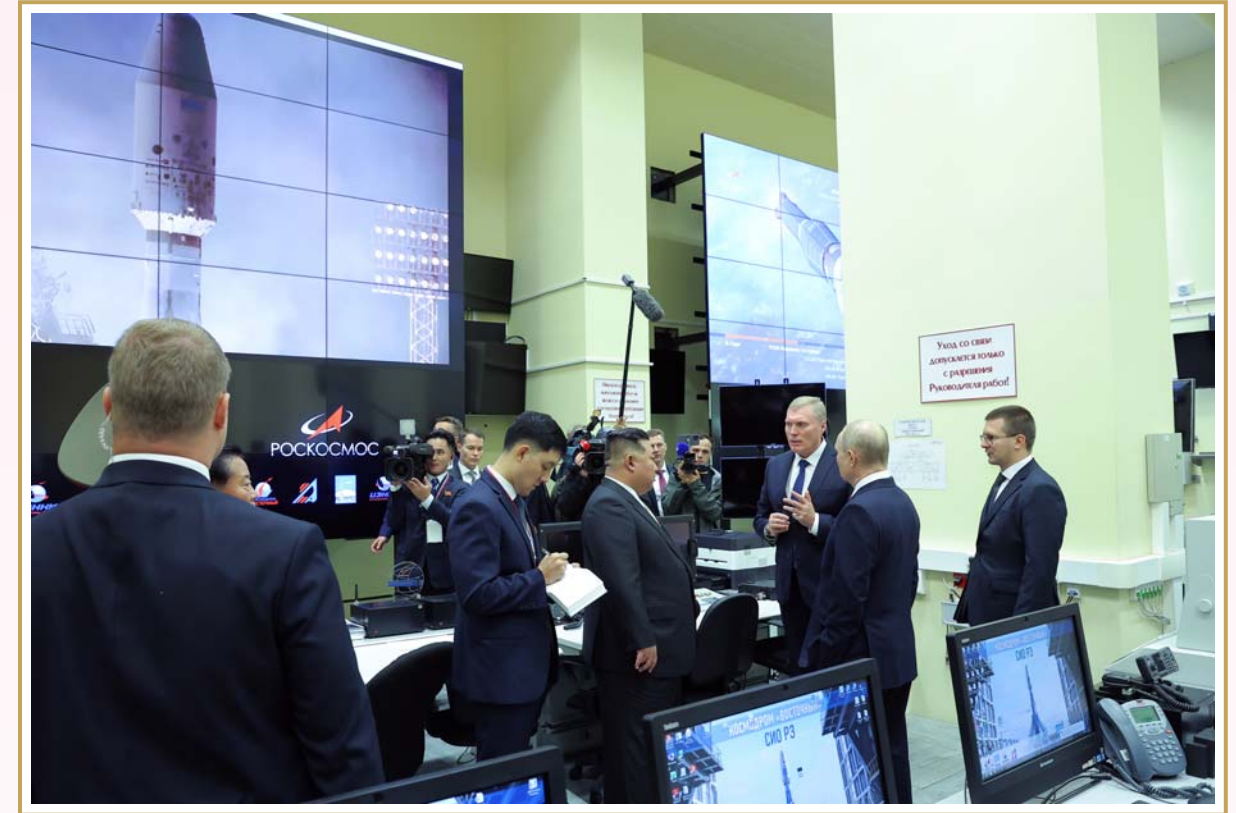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이 국가사업전반을 령도하는 바쁜 속에서도 따듯이 초청해주고 맞이해주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면서 이번 상봉이 매우 특수하고 특색있는 환경속에서 진행되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함께 위스토프스노이우주발사장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로씨야국영회사 《로스코스모스》 총사장 유리 보리쑤브동지와 우주지상하부구조운영센터 소장 니콜라이 네스쨤츠크동지가 안내해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과 함께 운반로케트조립 및 시험종합체를 돌아보시면서 《쏘유즈-2》, 《안가라》를 비롯한 운반로케트들의 구체적인 기술적특성과 조립 및 발사과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과 함께 운반로케트조립 및 시험종합체를 돌아보시면서 《쏘유즈-2》, 《안가라》를 비롯한 운반로케트들의 구체적인 기술적특성과 조립 및 발사과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였다.



또한 운반로켓 《쏘유즈-2》 발사종합체와 운반로켓 《안가라》 발사종합체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운영 및 건설실태와 로씨야가 우주산업분야에서 창조한 성과와 경험, 앞으로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청취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전동지의 전략적인 우주개발구상에 따라 위스토프츠느이우주발사장이 훌륭히 일떠서 귀중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주에로의 길을 개척한 강대한 로씨야의 승고한 정신과 전통이 빛나게 계승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전동지가 중요한 우주발사기지에 대한 성의있는 참관을 직접 조직하고 함께 동행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뿌전대통령은 자기의 전용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스토프츠느이우주발사장참관을 기념하여 방문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의 영광은 불멸할것이다. 김정은 2023. 9. 13》이라는 뜻깊은 친

필을 남기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9월 13일 로씨야연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전동지와 회담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뿌전동지는 회담에 앞서 조로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석상에서 뿌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돛과 로조의교관계설정 75돛이 되는 뜻깊은 해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를 또 다시 방문하신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위스토프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김정은동지와 상봉하게 된 기쁨을 피력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전동지가 중요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을 초청해주고 방문의 첫시작부터 따듯이 환대해주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표시하시면서 뿌전동지가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위스토프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우주강국 로씨야의 현실과 앞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알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관계를 최종대시하고 뿌리깊은 친선의 전통을 변함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방문이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는 의의깊은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최고수뇌분들께서는 두 나라사이의 고위급래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호상신뢰를 증진시켜나갈데 대하여 논의하시었다.

회담에서는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었으며 공동의 노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계속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합의되였다.

전원회담에 이어 김정은동지와 뿌전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친선과 선린,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조로수뇌분들께서는 강대한 국가건설의 전략적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이룩되고있는 괄목할 성과와 건설적인 협조경험, 국가부

흥과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누

시였다. 또한 인류의 자주성과 진보, 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제국

주의자들의 군사적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사이의

전략전술적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련대하면서 힘을 합쳐 국가의 주권과 발

전리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정의를 수호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과 당면한 협조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시였으며 만족한 합의와 견해일치를 보시였다.

회담은 시종 동지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씨야방문을 환영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가 9월 1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 앞서 뿌찐동지는 김정은동지께 상봉기념으로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자신께서 마련하신 선물을 뿌찐동지에게 전해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뿌찐대통령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공고하고 참다운 조로친선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주시는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을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뿌찐대통령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뿌찐대통령은 로씨야의 귀빈인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와 조선의 벗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친선적이고 동지적이며 선의적인 뉴대로 이어진 로조관계의 발전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북한 대통령은 로조관계는 오늘도 변함없이 동지관계, 선린관계로 지향되고있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와 번영을 위하여 일관한 노력을 기울일 로씨야정부의 드팀없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4년 5개월만에 로씨야련방을 다시 방문하여 북한대통령과 상봉하고 동지적우의의 정이 넘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

면서 방문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기울이고있는 북한대통령과 중앙과 원동의 관계부문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하시였다.

아울러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며 국가의 전략적리익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역사적 위업수행에 떨쳐나선 전체 로씨야인민에게 조선인민의 전투적경의와 따뜻한 형제적인사를 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북한대통령과 함께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고 그 위력으로 두

나라에서의 강국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하며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해나갈 용의를 피력하시였다.

연회는 우애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격식없고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연회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북한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것을 정중히 초청하시였다.

북한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로조친선의 력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북한동지가 건강하여 강력한 로씨야건설을 위한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시면서 북한동지와 뜨겁게 작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15일 아침 로씨야련방 원동지역의 주요공업도시인 콤포몰스크-나-아무레시에 도착하여 유. 아. 가가린명칭 콤포몰스크-나-아무레비행기공장을 참관하신데 이어 16일에는 로씨야련방 울라지보스토크시를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울라지보스토크시의 크네비치 군용비행장과 태평양함대 기지를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울라지보스토크시민들과 함께 마리인스끼극장 연해변강분극장에서 발레극 《잠자는 숲의 미녀》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17일 원동련방종합대학, 연해변강수족관, 아르니까생물사료합성공장을 련이어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일정

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귀로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9월 17일 울라지보스토크시를 출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번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은 동지적우의와 전투적단결에 뿌리를 두고있는 전통적인 조로선린협조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계기로 된다.

* * *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나날에

인민의 진정한 그 부름-어머니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

주체59(1970)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사업을 따라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당 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을 잘 아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계속하시여 당일군들은 모든 사업에 앞서 사람을 잘 알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람을 안다는것은 그의 진짜속 마음을 안다는것이라고, 속마음이란 말그대로 가슴속에 묻혀있는것이기에때문에 그것을 알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을 때

주체66(1977)년 8월 어느날 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이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군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향도적인 역량으로서의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 바로 이것이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의 총적방향이라고 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주체79(1990)년 1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혁명과 건설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도 인민대중에게 있다고,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에게서 배우며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

을 가장 큰 영예와 보람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고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일군이라야 참다운 주체형의 당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에는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우리 당일군들의 구호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

수십년전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광복거리와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중요대상을 건설하면서 군중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오래전에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혁명적인 구호를 내놓고 일군들이 군

오늘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8돐을 걱정과 환희속에서 맞이하고있다.

세상에는 자기의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들이 많다. 그러나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당은 조선로동당밖에 없으며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충성다하는 인민도 조국인민밖에 없다.

조국인민에게 있어서 조선로동당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였던 인민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했다.

그러했던 인민이 력사의 주인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당기에 마치고 낫과 붓을 아로새긴 인민의 참다운 향도자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을뿐 아니라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신 그때부터였다.

오늘도 수도의 명당자리인 남산재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전해주고있다.

언제인가 일군들이 이 명당자리에 정부청사를 앉힐 설계안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로 찾아간적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반대라고, 동무들은 무엇때문에 이 좋은 자리에 정부청사를 앉히자고 하는가고 엄하게 책망하시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아끼시던 남산재에 인민들이 학습하는 대학습당을 짓도록 하시였으며 일군

들이 모두 《김일성도서관》으로 부르자고 할때에도 자신의 존함대신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 《인민대학습당》으로 부르도록 하시였다.

인민은 결코 저절로 하늘이 되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면 하늘도 이기는 힘을 발휘하는것이 바로 인민이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였다.

그이의 인민사랑이 그대로 구현된 조선로동당의 정치에 의해 조국에서는 무상치료, 무료교육제의 실시와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고 누구나 돈 한푼 안들이고 자기의 꿈과 리상을 쫓피우며 참다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어머니당의 이름을 불러보는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한 사랑의 서사시를 아로새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이 숭엄히 안겨온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정치가, 령도자이시기 전에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조국인민들은 오늘도 얼음장을 타고 표류하던 한 어로공처녀를 구원하던 그때를 잊지 못해하고있다.

그때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처녀를 구원해야 한다고 하

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일하도록 한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

과 한가마뱀을 먹으며 호흡을 같이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의지가 반영된 구호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군중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것을 생활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 * *

단군릉이 전하는 이야기

단군은 B.C. 3000년기초에 동방에서 조선이라는 첫 국가를 세우고 문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우리 민족의 원시조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민족의 원시조에 관한 문제가 딱딱히 해명되지 못하였었다. 그것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가 수십년간 조선민족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감행한 민족문화말살책동에 기인된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력사학자들은 단군이 신화적인물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있었다.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민족의 유구함을 빛내여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 그릇된 력사관에 의하여 이지러진 민족사의 수많은 사건들과 사실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도록 하시였으며 력사학자들에게 단군연구를 심화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력사문헌들과 색이 바랜 잡지들까지 읽으시며 자료를 하나하나 찾으시여 력사학자들에게 보내주시였다. 그 과정에 평양시의 강동에 인민들이 대를 이어 제를 지내면서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에도 지켜낸 단군릉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82(1993)년 1월부터 단군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사업을 진행한 결과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대박산기슭의릉에서 유골이 나오고 그것이 단군과 그의 안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였다.

또한 어느 력사기록에는 단군을 조선의 왕이라고 써놓은것이 발견되였고 단군왕대를 47대까지 기록한 자료들도 발굴해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의 건국시조인 단군의 유골과 유물을 찾게 된것은 우리 고고학의 대승리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단군이 평양일대에서 태어나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생을 마쳤다는것이 확증된 조건에서 평양일대에 원시조의 무덤인 단군릉을 개건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주체82(1993)년 9월 그이께서는 80고령의 몸으로 강동땅을 찾으시여 앞이 흰히 트인 대박산

기슭 야산마루의 명당자리에 개건할 단군릉터를 잡아주시고 단군릉을 시조릉답게 꾸릴 설계도를 환히 펼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82(1993)년 10월 단군릉개건을 위한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지도해주실 때에도 무덤간안에 단군의 유골은 남쪽을 향하여 오른쪽에 놓고 안해의 유골은 그 왼쪽에 놓으면 된다고 이르시면서 옛날 우리 나라의 풍습에 결혼식이나 환갑잔치를 할 때 남자와 녀자가 서는 자리는 남쪽을 향하여 부동녀서로 정하고 남자는 동쪽에 서고 녀자는 서쪽에 서게 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부부가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남자와 녀자의 위치를 바꾸어 남편의 시체는 안해의 오른쪽에 놓고 안해의 시체는 남편의 왼쪽에 놓게 되어있다고 알기 쉽게 옛날 풍습과 대비해가며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룡건설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룡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주체83(1994)년 7월 6일에는 단군릉의 최종형성안도 보여주시고 빨리 건설하여 남조선과 해외 동포들도 다 와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만년의 민족사를 빛내여주시려고 애국애족의 심혈을 다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이시였다.

그이의 유훈을 받들고 건설자들은 독특하고 웅장한 단군릉을 개건하였다.

주체83(1994)년 10월에 개건된 단군릉에서는 이해부터 10월이면 온 민족의 관심속에 개천절 행사가 진행되고있다.

언제인가 개천절에 단군릉을 찾은 한 해외동포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괴력하였다.

《단군릉의 웅자가 산처럼 느껴졌다. 백약처럼 빛나는 단군릉은 지나온 반만년의 력사와 다가올 몇백만년의 민족사에 드리는 20세기의 기념비였다. 그것은 민족이 낳은 걸출한 령도자가 드린 지성의 탑이었다.

영광을 안았도다. 단군조선아!》

본사기자 김일봉

시며 강력한 구조대와 함께 직승기를 띄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여 끝끝내 사경에 처하였던 처녀를 구원해주시였다. 당시 기적적으로 구원된 딸을 부여안은 그의 어머니는 잃을줄 알았던 너를 당에서 두번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다고, 장군님께서 자식을 귀중히 여기는 어머니심정으로 너를 구원해주시였다고 오열을 터치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는 밀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고 일군들을 깨우쳐주시였으며 새로 일떠선 문화휴식터들과 봉사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부터 물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은 변함없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러 기회에 하신 연설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들을 받들어나가시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 하시였다. 그리고 그 뜻을 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느 단위를 찾으시여도, 그 누구를 만나시여도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을 위해 하는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할바에는 만점 짜리로 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고 하시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 지니신 이런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종합적인 물놀이장인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등의 의료봉사기지가 련이어 건설되고 나라의 곳곳마다에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들이 일떠서는 현실이 펼쳐졌다. 그리고 현대적인 새 거리, 새 마을들과,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과 같은 인민의 보금자리들, 대규모의 중평온실농장, 련포온실농장들이 련이어 솟아올랐다.

조건이 좋아서도 그리고 모든것이 풍족하여서도 아니다.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인민을 위한 그이의 정깊은 사랑은 인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고결한 헌신과 로고로 일관되어있다.

지금도 조국인민들은 나라의 중대사를 다 미루시고 큰물피해를 입은 라선시피해복구사업에 모든 힘을 다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하늘길, 배길을 달려 건설중에도 그리고 새집들이를 앞둔 때에도 련이어 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적인 모습을 잊지 못해한다. 그이의 헌신적인 모습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와 금천군 강북리를 비롯한 큰물피해를 입었던 이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다.

방역대전의 나날에도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비롯하여 중요당회의들을 소집하시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대책을 다 취해주시였다.

그 나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하여 보아주신 문건은 1770여건에 2만 2900여페이지에 달한다.

중앙비상방역기관을 찾으신데 이어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여 실태를 료해하시고 의약품들의 긴급수송과 조선인민군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급파하여 수도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도록 하시였으며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가까이 다가가 자식에게 더 원심을 쓰는 어머니의 모습그대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 보내주신 의약품을 받아안은 인민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격정을 터뜨리였다.

인민을 위해 존재하며 인민을 위해 가장 열화와 같은 사랑을 주는 어머니품-조선로동당, 그런 위대한 당은 인민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기마련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조국인민은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철석의 의지를 안고 사회주의건설의 전역마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어머니당에 드리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보답의 마음이다.

박주광

단합의 리념 아래

(전호에서 계속)

우리가 류하로 갈 때 제일 기뻐한것은 차광수였다. 그는 최창걸과의 상봉을 눈앞에 그리면서 어린애들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최창걸과 마찬가지로 차광수도 류하와는 범상치 않은 인연을 맺고있었다. 최창걸이 량세봉의 수하에서 룡혈포를 차고 돌아다닐 때 차광수는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었다. 그때 그들은 서로 뜻이 맞아 동지로 되었다.

《이 최창걸이가 눈은 높은 사람이지만 첫눈에 차광수한테 반했드랬소. 걸보기는 덜렁광창인데 속은 온통 노다지더란 말이요. 저 친구 머리속에는 칼. 맑스가 여러문명 울방자를 들고 앉아있소.》

언제인가 최창걸은 차광수와 의 첫 교우를 회상하면서 이런 롱을 하였다.

《최창걸이가 만일 아가씨라면 저 덜렁광창을 제일 선참 량군님으로 삼겠소. 그런데 길림의 아가씨들은 모두 소경들이 된 모양이거든.》

차광수는 그 롱을 들으면서 씨물씨물 웃기만 하였다.

길림시절의 차광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총각이었다. 그래서 최창걸은 늘 차광수의 중매는 자기가 선다고 하였으며 덜렁광창이 말을 타고 새각시네 집으로 가는 날에는 견마잡이도 자기가 한다고 희떠운 소리를 하였다.

마주서기만 하면 나는 형님이고 너는 동생이니 형님대접을 잘하라는 식으로 허물없는 롱질과 입씨름에 열을 올리곤 하는 두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참으로 만사람이 부러워하고 시샘을 느끼리만치 친밀하고 열정적인것이였다.

그 우정은 류하와 흥경, 철령일대를 중심으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대렬을 확대해나가던 나날들

에 더 깊어졌다고 말할수 있다. 최창걸은 차광수와 함께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고산자지부도 결성하였으며 왕청문을 중심으로 흥경현, 류하현, 반석현을 비롯한 남만의 여러 현들에 사회과학연구회라는 명칭을 가진 계몽단체들도 조직하였다.

사회과학연구회는 맑스-레닌주의와 조선혁명의 지도리론을 연구보급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있었다. 그 운영방법은 지금의 통신대학체제와 비슷하였다. 1년에 보름가량은 농한기를 택하여 청년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해주었으며 나머지시간에는 몇달에 한번씩 이동강의도 해주고 필요한 학습교재들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계몽시키었다.

사회과학연구회 성원들은 참고서를 놓고 강의에서 받은 내용을 자체로 학습한 다음 한주일에 한번정도 모여앉아 토론회를 가지었으며 리해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서면질의응답의 방법으로 배운 지식을 완전히 소화하였다.

남만청총대회가 소집되던 그해 가을에 류하에서 사회과학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차광수의 설명을 들은 나는 그 운영방법의 독창성과 참신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이 연구회를 이끌어가는 세 전우(최창걸, 차광수, 김혁)를 통이 크고 창조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들이 실천속에서 창조해낸 운영방법은 어려운 지하투쟁의 조건에서도 머리를 잘 쓰면 청년들을 시대의 선각자, 력사의 개척자로 훌륭히 교양해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구에 있게 될 최창걸과의 상봉을 눈앞에 그리며 삼원포방향으로 행군대오를 인솔해가는 내 가슴도 차광수 못지 않게 울렁거리었다.

카룬에서 첫 당조직을 못하고 그와 헤어진지 다만 2년이 되어오고있었다. 그동안 최창걸은 류하, 흥경, 해룡, 청원, 반석을 비롯한 남만의 광

대한 지역들에서 당조직들을 내오고 각종 대중단체들을 확대하며 조선혁명군의 한개 대를 지휘하면서 상비적인 혁명무력건설에 필요한 인적, 물질준비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1931년 봄에는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를 동방혁명군으로 개칭하고 그 지휘관이 되었다. 나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최창걸의 연락원은 그가 국민부반동파와의 알뜰때문에 고심한다고 말하였다.

그후로는 류하와의 연락도 두절되었다. 나는 이것이 은근히 불안스러웠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은 그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아무데나 텀벙 텀벙 내대는 타고난 모험가이고 락천가라는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테로를 만능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한 국민부의 테두리안에서 그 반동파들의 주시를 받으며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였다. 국민부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요시찰대상에게 속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었다.

왕청문사건이 있었던 그해말에 국민부반동들은 최창걸, 최득형을 비롯한 6명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여 대우구라는 곳에서 처형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은 력사에 류하사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새 사상을 지향하는 국민부내부의 혁신세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동파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었다. 피해자인 최창걸 자신은 파시스트화된 국민부상층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갈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류하지방에 박근원을 보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게 하였다.

《국민부와의 충돌은 어떤 형태의것이든지 백해무익하다.

반일을 지향하는 동족사이에 류혈은 있을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 왕청문에서 6명의 동지

를 억울하게 잃고도 피눈물을 머금고 참아온 우리가 아닌가. 매사에 심중하며 경거망동하지 말것이다.》

류하사변이 있는 후 국민부는 1930년 8월에 있는 조선혁명당 집행위원회와 대표회의를 계기로 두개의 진영으로 분렬되었다. 현목관, 량세봉, 고이허, 김문거, 량하산 등이 기존방침의 고수를 완고하게 주장하고 그 실현을 강요해나신데 대항하여 고원암, 김석하, 리진탁, 리웅, 현하죽, 리관린 등의 소장파인물들은 조선혁명당을 인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파시스트적인 정당으로 락인하고 그를 해체하여 무산자들을 대표하는 계급혁명의 전위로 되게 하는 동시에 재만 조선농민들을 계급적으로 령도해야 한다는 혁신적이고 방향전환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와 같은 리념상의 알뜰으로부터 두 파는 서로 상대방을 타도하고 매장하기 위한 피투성이 싸움을 벌리었다.

국민부파는 봉천성정부의 량해밀에 중국관헌들과 군경들까지 매수리용하여 반국민부파를 숙청하는 테로전에 달라붙었다. 그 과정에 그들은 리진탁을 비롯한 5명의 상대편 인물들을 암살하였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반국민부파도 국민부 본부를 습격하여 4중대장인 김문거를 총살하였다. 그후 반국민부파는 탈퇴성명을 내고 국민부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반국민부위원회라는 단체까지 만들어내었다.

최창걸의 신변에 대한 나의 걱정은 이런 정치적배경에 바탕을 둔것이다. 삼원포로부터 한마장쯤 떨어진 곳에서 나는 행군대오에 속보로 걸으라는 구령을 내리었다. 최창걸을 한시바빠 만나보고싶은 조바심이 우리의 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드높은 열의, 완강한 실천력으로

올해 조국인민들은 지속되는 방역상황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어느 부문이나 다 그러하지만 나라의 경제발전의 쌍기둥인 금속, 화학공업부문이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 제8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떨쳐나선 이 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기세는 높다.

그들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킨 것은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 탄부들이 지퍼올린 애국탄증산운동의 불길이였다. 그들은 모든것이 부족하지만 지난해보다 훨씬 높아진 인민경제계획을 매월 넘쳐 수행하면서도 상반기기간 수천t의 석탄을 증산하였다.

조국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다시한번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짚는 시기에 어느 부문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있는 탄부들이 누구보다 먼저 대중적인 애국탄증산운동의 불길을 지핀 사실은 전체 인민을 격동시키였으며 온 나라에 사회주의애국운동, 대중운동의 열풍이 일게 하였다.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평남탄전의 탄부들과 보폭을 맞추어갈 열의드높이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켜 상반기년도에 압연강재, 질소비료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이어

하반기년도에 현행생산과 개건현대화, 정비보강목표수행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북방의 대야금지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이 나래쳤다. 나라의 철강재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대형 산소분리기설치공사와 설비들의 정비보강을 다그치는 속에서도 현행생산을 완강하게 내밀어 매월 계획된 선철, 철강재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선진적인 용해방법과 로운영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끌어올리였으며 용광남비의 보수주기를 훨씬 늘일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자재,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일강괴생산실적을 높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설비조립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은 주체화대상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각종 강철구조물제작과 조립을 성과적으로 끝냈으며 수십개 건설대상의 설비장치물설치와 방대한 산소분리기설치공사를 결속하였다. 애로와 난관이 겹쌓였지만 그들은 서로의 창조적체와 힘을 합쳐 혁신적인 공법들을 련이어 창안도입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조업기일을 앞당겨나가고있다.

그런가 하면 황해제철련합기업

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주체화대상공사들을 줄기차게 내밀어 진일보의 성과를 이룩하고 지난 시기에 비해 높아진 철강재생산과제를 완수하고있다.

특히 조국의 준엄한 년대들에 대고조의 불길을 남먼저 지퍼올려 조선로동당을 옹위한 력사와 전통을 이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진군보폭을 힘차게 내짚고있다.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기성관례를 깨뜨리며 종전에 48시간이 걸리던 단조작업을 17시간만에 해제끼고 초고전력전기로의 보수기일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압연강재생산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편속 돌파하였다.

청진제강소와 보산제철소를 비롯한 각지의 강철공장들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하면서도 그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무산광산

련합기업소와 은물, 재령광산에서는 철광석을 원만히 생산보장함으로써 철의 기지들에 비약의 숨결을 더해주고있다.

부령합금철공장, 흥남전극공장에서 규소철, 전극물생산을 장성시켰다.

화학공업부문의 로동계급도 상반기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가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은 화학공업부문이 제일먼저 들고일어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중요설비들을 개건하여 전력소비를 줄이면서도 생산실적을 올

려 많은 비료를 농촌들에 보내주었으며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봉화화학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현행생산공정과 설비들의 능력제고를 위한 기술혁신사업을 립체적으로 내밀어 화학제품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정비보강에 힘을 넣어 화학공업의 전망적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가고있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 영양액비료공장건설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으며 동시에 그에 따르는 설비, 장치물제작을 따라세우고있다. 그런가 하면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원료, 자재의 국산화실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촉매생산기지과 질 좋은 수지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멜라민수지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 등

이 빠르게 진척되고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으며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명간화학공장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생산활성화를 위한 현대화공사와 설비, 생산공정들의 정비보강을 위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현행생산과 함께 방대한 규모의 개건현대화공사와 정비보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밀고나간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금속, 화학공업의 새 력사를 창조해간다는 드높은 열의를 안고 완강한 실천력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완성해가고있다.

본사기자 강은순

생산정상화의 동음높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약동하는 철의 기리

-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어느 직장, 어느 일터에 가보아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강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용해공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산소열범용광로직장 용해공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듯 높다. 이들은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타파하고 어느 교태나 한의 쇠물이라도 더 끓여내기 위해 경쟁열의를 고조시켜나가고있다.



용해공들은 쇠물생산량이 자철강재생산실적이고 김철의 전진속도라는것을 명심하고 교대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쇠물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있다.

기술자들도 밤이 지새는줄모르고 생산기록을 갱신할 새로운 방법들을 탐구하고있다.

하여 이들은 선진적인 용해방법과 로운영방법을 적극 활용

하여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끌어올리였으며 용광남비의 보수주기를 훨씬 늘일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자재,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일강괴생산실적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할 기세드높이 김철의 로동계급은 오늘도 차지당 쇠물생산량과 일별차지수를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들의 가슴마다에는 전후천리마대고조시기 19만의 공칭능력을 뛰어넘어 27만의 선철을 뽑아냄으로써 조선사람의 본매를 보여준 자랑스러운 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가려는 일념이 자리잡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조선중앙통신



인기있는 공기조화기-《청기》

최근 조국에서 《청기》상표를 단 성화무역회사 산하의 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기조화 및 냉난방설비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고있다.

인류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더 맑고 깨끗하며 리상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실내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공기조화설비의 출현을 가져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광범히 리용되고있는 공기조화 및 냉난방설비는 실외기와 실내기가 따로 있고 실외기를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게 되어있다. 이로 하여 설치과정에 건물외벽에 손상을 주게 되며 건축물의 미적가치도 떨어뜨리게 된다.

공장에서는 현존공기조화설비의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물을 열원천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기조화설비인 물열원랭온풍기를 설계제작하였다.

물열원랭온풍기는 땅속층에 있는 지하수뿐만 아니라 강과 호수, 바다물 등 지표면의 물과 가정들에서 리용하는 상수를 열원으로 하여 건물내부의 온도를 보장할수 있어 지역적, 지대적특성에 관계없이 설치하여 리용할수 있다. 물을 랭열원으로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 배수관을 따로 늘일 필요가 없다.

설비의 이러한 특징으로 하여 상업봉사망들과 극장, 영화관은 물론 개인집들에도 제한없이 설치할수 있다.

공장에서는 설비의 열효율을 높이면서도 실내에 설치되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 소음을 줄이였다.

특히 사용자나 구매자의 요구와 취미에 맞게 설비의 보호틀을 나무재질과 유리재질, 수지재질로 임의의 문양으로 제작해주어 실내장식효과를 높이였다.

《청기》공기조화기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준다.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새형의 R134a랭매를 리용한 공조랭동설비발전추세에 맞게 이 랭매를 리용하였다.

또한 통합조종체계를 리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조종할수 있으며 판형컴퓨터나 손전화기로도

조종가능한 제품이다.

현재 이 공기조화기들은 문수물놀이장과 류경안과종합병원, 평양애육원을 비롯한 많은 봉사시설들과 기관들에 설치되었으며 가정들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인기가 높은 제품들중의 하나이다.

글 본사기자 엄릉
사진 본사기자 리철

- ① 물열원랭온풍기
- ② 공기랭각식열뿔프
- ③ 공기랭각식랭온수기
- ④ 지하수열원열뿔프
- ⑤ 정화형공기조화기



로쇠를 이기는 힘

조국에는 고령의 나이에도 일터를 떠나지 않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공로로 보아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도 되겠지만 그들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자신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다.

《조선말대사전》편찬에 한생을 바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문법연구실 연구사 정순기선생은 때때로 60여년전의 일들을 추억하곤 한다. 평안북도에서 통천제1고급중학교(당시)를 다닐 때 책읽기를 즐겨했던 그는 이름난 소설가가 될 꿈을 안고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에 입학하였다.

배움의 나날 그는 조선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었다. 특히 선조들이 창조한 《훈민정음》에 대해 깊이 알게 되면서 표현이 풍부하고 섬세한 감정을 잘 나타내는 우리 말의 우수성에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



원사 교수 박사 정순기

어 그는 조선어연구사가 될 결심을 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 배치받은 그가 처음으로 한 사업은 《조선말사전》 편찬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전달받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그는 자신이 한생을 다 바쳐서라도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실천하는 길에서 그는 1960년대에 《조선말사전》을 편찬한데 이어 조선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여러 류형의 《조선말대사전》을 편찬하였고 조선어문법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한 13종의 참고서와 10여건의 도서들을 내놓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때로 병환이 침습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연구사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원사, 교수, 박사인 그는 84살의 고령의 나이이지만 지금 언어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자기를 넘려해주는 사람들에게 정순기선생은 조선어기능문법을 연구하는 과제를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없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곤 한다.

조선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리률선

주체108(2019)년 수도에서 열린 국가미술전람회에서 한폭의 조선화 《백두산의 호랑이》는 무엇인가 노려보는 맹호의 서슬푸른 눈과 금시라도 달려갈것같은 자세, 역센 발톱을 물결기법으로 힘있고 박력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86살나이에 이 작품을 창작한 인민예술가이

며 부교수인 리률선선생이 조국해방전쟁참전자이며 영예군인이라는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의 인생은 기성관념에 도전하여 민족의 회화유산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온 나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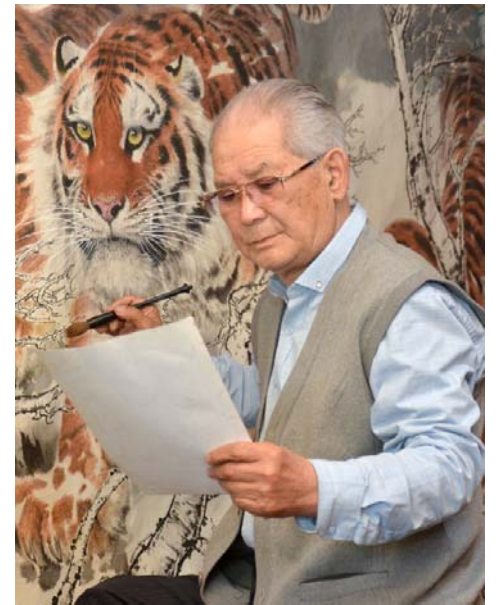
평양미술대학졸업을 앞둔 시기 야심만만한 제대군인화가는 조선화기법으로는 인물화를 형상할수 없다고 하던 당시의 기성리론에 도전할 결심을 품고 자기의 졸업작품을 준비하였다.

전화의 나날 자기가 체험하였던 사실에 근거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을 구원하고 희생된 한 농민을 조선화로 형상하였다. 그의 그림은 조선화단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주체46(1957)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미술전시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선 그는 조선화의 기법들을 발전시켜 민족미술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서 중점으로 내세운것이 물결기법을 발전시켜 인물화형상수법을 완성하는것이였다. 이 과정에 그는 조선화 《간석지개간》, 《식량증산을 위하여》를 비롯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조선화로도 인물들을 훌륭히 형상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였다. 그는 자기의 경험에 토대하여 《조선화창작참고서》, 《조선화기초》를 비롯한 많은 참고서들을 집필하여 미술인재육성에 이바지하였다.

하기에 그를 두고 사람들은 성공한 미술가이기전에 성공한 교육자라고 말한다.

현재 조국의 미술계에서 많은 국보적인 작품들을 창작하여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



인민예술가 부교수 리률선

예술가, 공훈예술가칭호를 받은 미술가들과 미술대학의 여러 교수, 박사들로 성장한 미술계의 권위자들이 오늘도 리률선선생앞에서 학생의 자세로 조언을 받고있다.

일흔을 넘어 교단을 내린 후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젊었을 때처럼 조국을 위해 피를 바칠수는 없지만 땀과 정열이야 왜 바치지 못하겠는가.

고령의 나이에 창작한 그의 작품들은 여러 전람회에서 평가를 받았으며 10여점의 작품들이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작품으로 등록되었다.

글 본사기자 김영은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유모아

할아버지의 손자교양

한 늙은이가 어린 손자를 교양하였다.

《애야, 이제는 다 큰애가 온종일 장난질만 하고 집일을 전혀 하지 않으니 어디에 쓰겠니? 무슨 일이나 좀 배우거라!》

《난 아직 어린데요 뭐.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요?》
《9살인데두 어디다구? 난 5살때 보를 잡고 밭을 갈았다.》

《거짓말! 5살때 어떻게 보잡이를 해요? 키가 모자라는데...》

《난 걸상에 올라서서 보를 잡았다.》

《거짓말!》

《거짓말이라구? 네 아버지한테 물어보렴. 네 아버지가 그때 앞에서 소를 몰았단다!》

* * *



안해 전해옥

남편 박경수

딸 박예향

료리사가정

평양역앞공원에 있는 경흥은 하수음식점은 평양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식당의 경리인 염해선은 그 리유가 교통의 중심지인데도 있지만 10여년을 료리사로 일하고있는 박경수주방장의 료리가공기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가 가공한 소불고기, 평양랭면은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가 다르게 단골손님들이 많아지고있다.

더우기 얼마전 TV로 그의 료리솨씨가 소개되면서부터 이 식당은 더 소문났다.

가정주부들은 그에게 어떻게 불고기를 재우는지 그 비결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박경수주방장은 료리가공법이 표준화되어있지만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는가에 따라 료

리의 제맛을 살릴수도 있고 살리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며 성의껏 자기가 터득한 가공법을 알려주곤 한다.

박경수주방장은 지금껏 료리에 정성을 다 바쳐왔다.

료리감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매 공정에 따르는 가공을 섬세하게 하면서도 재료들의 호상작용과 영양성분들을 따져가며 과학적으로 진행한다.

그렇다고 그가 하는 료리에 특별히 조미료들이 더 들어가는것도 아니다.

그는 민족음식의 고유한 맛을 살려 그 전통을 빛내이고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풍만하게 하기 위해 매 료리들의 가공방법을 실천에서 하나, 둘 터득하였다.

손님들은 그가 한 료리들은 다섯가지맛을 단번에 느끼게 한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꾸준하면서도 무서운 정열가

인 그는 민족료리제법들에 정통하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료리들도 창안하였으며 그 과정에 료리명수로도 되었다.

그가 만든 산가물치회, 줍친큰검정가재미대加里튀기는 이 식당의 명료리로 등록되었다.

박경수의 온 가족은 료리사가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의 안해인 전해옥은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으며 그의 딸 박예향도 장

철구평양상업대학 급양학부 2학년 학생이다.

박경수주방장보다 9년이나 먼저 료리사생활을 시작한 전해옥은 평양호텔에서 료리사로 일하면서 민족음식에서 특기를 가진 료리사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조선김치를 잘하는데 그가 만든 김치는 그 맛이 독특하여 조국인민들은 물론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속에서도 호평이 대단했다.

그러한 경험은 대학교단에 선후 그의 강의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전해옥은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식생활에 널리 리용해온 김치의 유래로부터 그 종류, 그 맛을 살리기 위한 비방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이 료리축전들에 입선하여 좋은 성과

를 거두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그러면서도 여가시간이면 남편의 료리기술제고에 남모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있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학생인 박예향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음식맛을 보아와서인지 료리를 잘한다. 어려서부터 료리에 취미를 붙인 예향은 실습때면 특색있는 료리들을 내놓곤 하여 교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곤 한다.

그는 짬시간이면 민족음식으로 부터 시작하여 세계적인 명료리들의 제법들을 탐독하고 영양학에 대하여서도 파고들고있다.

박경수주방장의 집에서는 휴식일이면 자주 가정료리경연이 진행되곤 한다. 같은 음식을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맛있게 만드는가 혹은 같은 음식감을 가지고 누가 더 특색있는 료리를 만

드는가 등 다채롭게 진행되는 가족경연의 난도는 전국적인 료리경연 못지 않은데 때때로 심사말은 할머니의 《편심》으로 손녀가 1등을 하곤 한다.

이 과정은 그대로 음식가공기술을 제고하는 과정으로도 되고있다.

박경수주방장은 딸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민족료리를 한다고 해서 다 민족료리사가 되는것은 아니다. 민족의 우수성을 잘 알고 그것을 빛내여가려는 마음이 료리에 비껴야 한다.》

이들이 살고있는 중구역 서창동 10인민반 주민들은 이 가정을 두고 료리사가정이라고 말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쟁쟁한 가수후비들이
키워내다
교육자

해주예술학원 성악강좌 교원 오은경은 32살의 여성이다.

교원년한도 얼마 안되고 예술단체들에서 활약한 경험도 없는 그이지만 제자들을 쟁쟁한 가수후비들로 키워내고있다.

제자들속에는 전승 69돛 기념공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돛 경축대공연,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을 비롯한 여러 공연들에서 독특한 소리와 노래형상으로 인기를 끈 이름있는 가수도 있다.

그가 키워낸 여러 제자들이 매해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에 입학하였다.

제자의 모습에 스승의 모습이 비낀다는 말이 있다.

평양음악학원(당시) 사범학

부를 졸업한 오은경이 해주예술학원의 교단에 선것은 지금으로부터 9년전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그는 말은 학생들을 재능있는 가수들로 키워 내세우고싶은 충동을 안고 교수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치였다.

그는 학생들의 개성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성악지도를 하기 위해 탐구를 진지하게 하였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원인을 찾기 위해 이름있는 배우들의 노래를 수십, 수백번이나 들었고 음성과 인체의 구조와의 연관성도 연구하였다. 때로는 새로 찾은 교수방법들

을 놓고 판록있는 선배교원들과 토론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늘 그의 머리속에서는 학생들의 노래소리가 떠날 줄 몰랐으며 수업과 자료연구, 새로운 교수방법모색이 생활의 전부로 되다싶이 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성악훈련을 소홀히 하는데 대하여 스쳐버리지 않는다. 자그마한 실수가 있으면 엄하게 지적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그의 요구성은 매우 높다. 자신은 물론 학생들에게서 오직 완전무결함만

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야 그날 성악훈련을 끝내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그를 가수후비육성에서 손꼽히는 젊고 실력있는 교육자로 되게 하였다.

그와 같은 강좌의 교원인 부교수 한혜영은 《은경선생은 음감이 매우 예민하다. 다른 사람들이 잘 가려내지 못하는 노래소리의 부족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 원인을 지적해준다. 그 어떤 학생이든지 그의 지도를 받으면 소리색갈, 성량, 형상 등이 달라진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정열적이며 과학적인 성악지도로 학생들의 기량은

눈에 띄게 발전하였으며 여러 학생들이 전국적인 축전, 경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악지도와 훈련에서 단 한치의 양보나 드팀을 모르는 랭철하고 엄격한 선생님이지만 학생들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훈련부담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수개월간이나 집에 데려다 함께 생활하며 혈육의 정을 기울인 그였다. 그리고 제자들이 상급학교들에 추천받아 갈 때면 꼭꼭 생활필수품들도 마련하여주었고 대학기간에는 학습과 생활을 잘하도록 늘 원심을 쓰곤 하였다.

그에 대하여 김원균명칭 평

양음악무용종합대학 학생인 박란순은 《선생님의 높은 요구성, 어머니와도 같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모두가 가수후비들로 자라날수 있었다.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계발시켜준 그는 우리가 한생 잊지 못할 스승이다.》라고 하며 예술학원 시절을 추억하였다.

그는 쟁쟁한 가수후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낼 야심과 열정을 안고 교육사업에 헌신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산과 강을

다스려 행복을 마련해간다



운산군에서 치산치수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운산군산림경영소 양묘장



운산수리봉발전소



운산메기공장



동포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취재길은 평안북도 운산군으로 이어졌다.

운산군은 군면적의 73%가 산지로 되어있고 하천들이 조밀하며 구름과 안개가 자주 끼어 비도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그런데로부터 운산이라는 지명도 산이 구름을 이고있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운산군의 이러한 자연지리적조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불리한 점이 많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군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비록 산골군이지만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주목되는것은 군이 산과 강을 잘 다스려 덕을 보고있는것이였다.

군인민위원회 부원 안경원은 운산군은 지난 시기 무더기비가 내리면 골짜기마다에서 흙물이 흘러내리고 강하천들이 범람

하여 군주민들이 피해를 입곤 하였다고 말하였다.

자연의 재앙을 막는것은 군주민들에게 있어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섰다.

그리하여 치산치수사업이 군적인 사업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우선 군에서는 모든 산림자원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빨리자라는 나무들외에도 잣나무, 기름밤나무, 단나무, 짚팡이나무, 다래나무, 머루나무와 같은 경제적수익성이 높은 나무들과 약초들도 대대적으로 심어 산림자원을 늘이였다. 이외에도 현대적인 모체양묘장을 일떠세우고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해마다 40종에 15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키워냈으며 모든 리들에도 양묘장을 건설하여 산림자원을 늘일수 있는 토대를 전망성있게 갖추었다. 지난 10여년동안에만도 군에서 새로 조성한 산림면적은 8 000여정보에 달한다. 이렇게 조성한



운산군학생소년회관



운산군은덕원



운산군국수집



평양산원 운산료양소



재능을 꽃피워가는 운산군학생소년회관의 소조원들

급하고있으며 군안의 탁아소와 유치원들도 보내주고있다. 운산군고려약공장에서 산에서 채취한 약초로 수십가지의 고려약들을 생산하고있다.

군주민들은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는 한편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강하천정리, 사방야계공사도 적극 추진하였다. 결과 몇해동안에 구룡강을 비롯한 연 190여km구간의 강하천들에 대한 바닥파기와 제방쌓기가 계속되고 견고하게 쌓은 제방우로는 중량화물자동차들도 오갈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군주민들은 운산수리보발전소에 대한 개선사업도 통이 크게 벌려 종전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지금 군주민들은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로 자연의 재앙을 막은것은 물론 많은 부침땅을 얻게 되었고 군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군주민들은 온천의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이들은 온천물을 리용한 년간 수백t생 산능력의 운산메기공장을 건설하여 식생활을 개선하였을뿐 아니라 편의봉사기지인 은덕원과 은정원물놀이장도 꾸려놓았다. 더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와 약초, 산열매들은 군의 경제발전에 이바지되고있다.

운산군식료공장에서는 산열매를 원료로 당과류와 술, 각종 음료 등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

우기 평양산원 운산료양소는 광천치료효과가 뚜렷하고 치료조건과 환경이 좋은것으로 하여 전국에 소문이 나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있다.

하기에 미국 로스안젤스에서 살고있는 지두환동포의 사촌동생인 운산군 북진로동자구의 지대환로인은 《궁벽한 산골이라고 탓할것이 아니라 산과 강을 잘 리용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늘 머리를 쓰며 일한다면 얼마든지 행복의 길을 열어 나갈수 있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참으로 산과 강을 다스려 행복을 마련해 가는 운산사람들이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상 식

민속무용 《회령북놀이춤》

민속무용 《회령북놀이춤》은 회령지방에서 발굴된 민속무용으로서 땀흘려 이룩한 풍년가을의 기쁨을 반영한 춤이다.

이 춤은 처음에는 한해농사에서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의 미신적관념을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춤은 점차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대중적인 놀이의 성격을 띠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대북보다 중북이 널리 활용되었고 종전의 무겁고 복잡한

동작들보다 평범하고 단순하면서도 흥취를 돋구는 흥겨운 춤가락들이 보충되면서 대중적인 민속무용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내용에서 량반들이나 중들을 풍자함으로써 착취계급에 대한 반항의 정신을 폭넓게 반영한 민속무용으로 발전하여왔다.

민속무용 《회령북놀이춤》은 단순하고 통속적인 몇개의 춤동작과 장단을 자주 반복하는 수법으로 엮여지고있다.

처음 장새납의 경쾌한 선물과

북, 장고, 팽파리의 장단소리가 조화되어 울리고 녀인들이 대북주위를 돌면서 춤추는것으로 시작되는 이 춤은 중북을 맨 남자들이 북채를 하나 더 꺼내어 북가락기교를 부리면서부터 절정을 이룬다.

이 춤은 경쾌하고 약동적이며 락천적기백이 넘쳐흐르고있을뿐 아니라 농사에서 풍년을 거두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소박하고 근면한 정신세계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져왔다.

* * *

언어학자 권종성

조국인민들 누구나가 그러하듯이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응용언어학연구실 연구사 교수 박사 권종성도 《애국가》를 때 없이 숭엄하게 불러보곤 한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 10여년을 살면서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며 민족적멸시와 천대가 어떤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애국가>를 가슴속에 새기고 즐겨 부르곤 합니다.》라며 추억을 더듬었다.

조국의 귀중함을 알게 한 단향살이 100여년

여든에 가까운 권종성선생은 일제가 패망의 마지막숨을 몰아쉬던 주체34(1945)년 6월 일본의 효고현에서 태어났다.

당시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사

람 누구나가 다 그러하듯이 그의 가정도 민족적멸시와 억압속에 죽지 못해 살아갔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하여 투쟁에 나섰다. 그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된 후 고베시지부 위원장으로 사업하던 아버지는 여러 차례의 감옥생활을 하면서 만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릴적부터 그는 굶주림과 헐벗음, 그우에 덧쌓이는 민족적멸시와 차별, 그 모든것을 입술을 깨물고 참아야만 하였다.

당시 그가 다니던 학교는 학생들에게 조선말을 배워준다는 리유아닌 리유로 일본경찰들의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피눈물나는 이러한 생활체험들은 선생으로 하여금 조국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

한생을 민족의 언어발전을 위하여

주체48(1959)년 12월 그의 일가는 총련사업을 하다가 순직한 아버지의 소원대로 제1차 귀국선을 타고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처음으로 조국땅을 밟던 그날 선생은 가족들과 함께 《애국가》를 목청껏 부르고불렀다고 한다. 조국에서는 그의 가정이 평양시 중심구역의 좋은 살림집에서 살도록 해주었고 아버지에게는 련사증을 수여해주었다.

조국의 품에 안긴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조선어학과(당시)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에 입학하던 날 그는 이런 결심을 다지였다.

(우리 나라의말과 글을 발전 풍부화하는데 나의 모든것을 다 바치리라.)

이런 결심으로 그는 조선어 발전을 위한 탐구에 모든 정열을 바쳐갔다. 향학열로 불리는 그가 아침을 맞이할 때면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은은히 들려왔다. 그 선율에 맞추어 선생은 조용히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더 굳게 가지였으며 졸업후 희망대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 배치받았다. 연구사로 사회생활의 첫발자국을

뎀 그는 응용언어학의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였다. 그 과정에 응용언어학과 관련한 수많은 도서들과 소논문들을 집필하였다.

주체85(1996)년 10월 그가 집필한 논문 《조선어정보처리》는 학계에서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 논문은 그의 박사논문으로 되었다.

그는 연구사로 있으면서 《조선어정보론》, 《세계언어와 문자》, 《조선말대사전》등을 비롯하여 많은 도서들과 논문들을 집필편찬하였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권종성 선생의 부인 정민영녀성도 17살에 조국의 품에 안겨 상업학원(당시)을 졸업하고 30여년간 재정일군으로 사업하였다. 그의 자식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

기술전당에서 일하고있다.

한마을에서 사는 동년배들이 때때로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 손주들과 함께 여생을 즐기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때마다 선생은 《나는 일본에서 길가의 조약돌과 같이 왜놈들의 발길에 채이던 몸이었다. 그러한 나를 조국은 따사로운 품에 안아주고 오늘에로 내 세워주었다. 나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준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 더없는 락이고 행복이다.》라고 말한다.

오늘도 그는 《애국가》를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응용언어학의 심원한 세계를 파고들고 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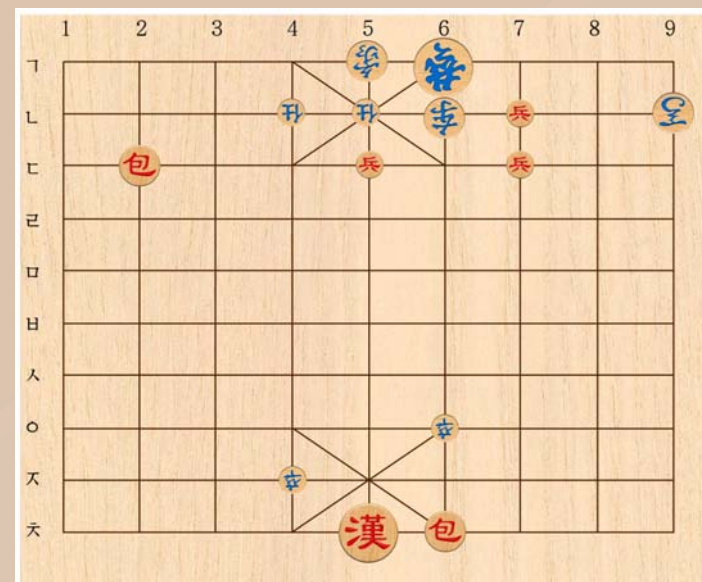


교수 박사 권종성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장기수풀이 (10)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장기격언

조급성과 신경질은 패배와 4춘

장기에서 조급성과 신경질은 매우 해롭다는 뜻이다.

또한 이 말은 장기를 너그러운 품성을 가지고 두어야 자기의 장기수를 원만히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장기수풀이 (9)에 대한 답

ㄴ9차 79, 76궁 ㄴ6, ㄱ4포 ㄱ6,
ㄷ6말 ㄷ8, ㄱ6포 ㄱ2, ㄱ8차 ㄱ6,
ㄱ2포 ㄴ2, ㄴ5상 ㄱ7, ㄱ1상 ㄴ3,
ㄱ7상 ㄴ5, ㄴ3상 ㄱ6, ㄴ5상 ㄱ2,
ㄱ6상 ㄴ3, ㄴ6궁 ㄱ6, 79차 76,
장훈

조국은 우리 삶의 영원한 품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어언 일흔다섯번째의 년륜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조용히 그 이름 불러만 보아도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고싶은 어머니조국의 건국명절을 맞이한 우리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태양조국의 해외공민된 가슴뿌듯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9월의 조국하늘가를 우러러 축원의 인사,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습니다. 구순을 눈앞에 둔 제가 9월에 들어서면서 남다르게 더더욱 강렬해지고있는 태양과 같은인 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붓을 들고보니 하나의 굵직한 획으로 이런 글발이 절로 새겨집니다.

《조국은 우리 삶의 영원한 품!》

공화국이야말로 우리 재일동포들을 따뜻이 품어안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보살펴주는 영원한 삶의 품이라는것을 한생토록 생생히 새겨안고있는 력사의 체험자, 증견자로서 재일조선인운동사의 갈피마다에 깃들어있는 어머니조국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 일부를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공화국은 진정한 우리의 고향

일본 도쿄의 한복판에 우뚝 서있는 조선회관상공에서 힘차게 나뭇기는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면 마음은 절로 송엄해지고 어머니조국에 대한 그림움이 샘처럼 솟구칩니다.

조국해방과 더불어 일떠선 조선회관은 근 80년의 력사와 더불어 여러번이나 옮겨지었지만 회관상공에서는 지난 75년간 우리의 공화국기가 어느 하루도 나뭇김을 멈춘적 없었습니다.

오늘도 도쿄의 상공에서 찬연히 휘날리는 람홍색국기를 보느라니 해방의 기쁨을 안고 고향 땅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헤어졌던 동포들이 일본으로 되돌아오던 모습이 어제런듯 방불히 떠오릅니다.

희망안고 남조선으로 귀국했던 수많은 동포들이 쪽배를 타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오는것을 보고 철없던 저는 의혹을 금할수 없어 이웃집 할

머니에게 저 사람들이 왜 다시 돌아오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하는 말이 그래도 고향이라고 찾아갔지만 미국놈들과 민족반역자들이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는 집과 직업을 얻기는 고사하고 한시도 마음편히 살수 없어 다시 온다고, 그곳은 고향이 아니라 타향이고 조국이 아니라 이국이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북조선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제눈으로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희한한것들이였습니다.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 남녀평등권실시 등 희망으로 가슴높뛰게 하는 놀라운 소식들이 련일 전해지던 그때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5(1946)년 12월 13일에 보내주신 력사적 서한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를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은 강대한 위력으로써 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동포들을 돌보아줄것이며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동포들을 따뜻이 맞아들일수 있게 될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넘친 말씀을 받아안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재일동포들에게도 광명의 해빛을 뿌려주셨다.》고 격정을 터치였습니다.

사랑의 서한을 받아안은 재일동포들은 조국이라는 말의 참뜻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동포사회가 감격과 환희로 끓어번지던 그때 저의 나이는 13살이였습니다.

공화국기도안을 조국의 방송을 통해 알고 동포들이 자작 만든 엽비슷한 기발들을 손에 들고 기쁨속에 웃고있던 그 광경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난생처음으로 제 나라 기발을 보게 된 저로서는 국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는 알수 없었지만 형언할길 없는 환희가 온몸을 감싸안는것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탓에 산설고 물설은 일본땅으로 끌려와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등살을 벗기우고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우리 동포들에게 있어서 공화국기는 그대로 조국이고 고향이였습니다.

하기에 점령군인 미군이 《공화국기계양금지령》을 발표하고 일본경찰을 내몰아 공화국기계양을 한사코 막으려 총칼을 휘두를 때 동포들은 우리의 성스러운 국기를 지켜 결연히 싸웠습니다.

공화국기사수투쟁의 나날 우리 동포들이 피흘리며 지켜낸 한쪽의 공화국기가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어 조국이라는 말의 참뜻을 후대들에게 가슴깊이 새겨주고있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된 그해 10월초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과 함께 공화국창건의 기쁨을 나누지 못한것을 두고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재일동포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해주시였습니다.

한덕수동지를 비롯한 우리 동포들모두가 얼

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그 광경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여명규모로 경축대표단이 구성되었지만 미일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일부 대표들만이 조국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조국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으로 가슴끓이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풍랑사나운 바다길에 올랐던 그날에 한덕수동지가 쓴 시 《조국으로 가는 길》을 조용히 외워보면 조국을 따르려는 우리 동포들의 지향이 얼마나 열렬했던가를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조국애에 불타는 60만 동포들의
붉고붉은 그 마음 이 한품에 안고서
조국으로 가는 길 성스러운 이 길을

...
아 쪼각배야 력사의 이 배야
겨울물결 헤치고 빨리빨리 달려라
바다너머 저 멀리 그리운 조국땅에
포근히 안아주실 장군님이 계신다
...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공화국만이 우리의 정든 고향이고 우리가 영원히 안겨살 진정한 조국이다, 이것은 망국노의 설음안고 일본땅에서 살아온 우리 재일동포들의 신념의 선택이였습니다.

고향이 대부분 남조선인 재일동포들이 어찌하여 공화국을 진정한 고향, 참다운 조국이라 부르며 공화국기를 손에 들고 운명적인 선택을 하였겠습니까.

안아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수령의 품이야말로 진정한 조국이라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기에 재일동포들은 남행길이 아니라 북행길에 올랐고 서울행이 아니라 평양행을 택하였던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문덕철새보호구



노랑부리백로



저어새와 누르삿저어새무리

문덕철새보호구는 조선서해안의 평안남도 문덕군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람사르대습지),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지역망으로 선정된 문덕철새보호구는 많은 종류의 새들의 서식지로 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보호종새류 가운데서 물개리, 흰두루미, 재두루미 등 10여종이 이곳을 정기적인 서식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알려진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도 이 일대를 이동도중과

번식기간에 먹이터로 이용하고 있다.

문덕철새보호구에 사철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드는것은 지리적위치로서만이 아니라 좋은 생태환경과도 밀접히 련관되어 있다.

조국에서는 이미 주체84(1995)년에 조선서해안의 청천강하류일대의 수천정보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문덕철새보호구로 지정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일대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무척추동물들에 대한 보호증식과 함께 수산증식사업도 적극 벌려 새들에게 풍부한 먹이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조국에서는 보호구일대에 펼쳐진 드넓은 갈숲을 비롯하여 갖가지 식물들에 대한 보존과 관리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새들에게 더없이 좋은 은신처가 되게 하고 있다.

깨끗한 환경과 생물다양성으로 하여 문덕철새보호구는 새들의 보금자리로 되고 있다.

* * *



해마다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색가라지를 끼운 도요새들이 문덕철새보호구에서 관찰되고 있다.



문덕 철새 보호구의 습지는 주체107(2018)년 1월에 조국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4월에는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지역망에 등록되었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